

ISLAND ADVENTUR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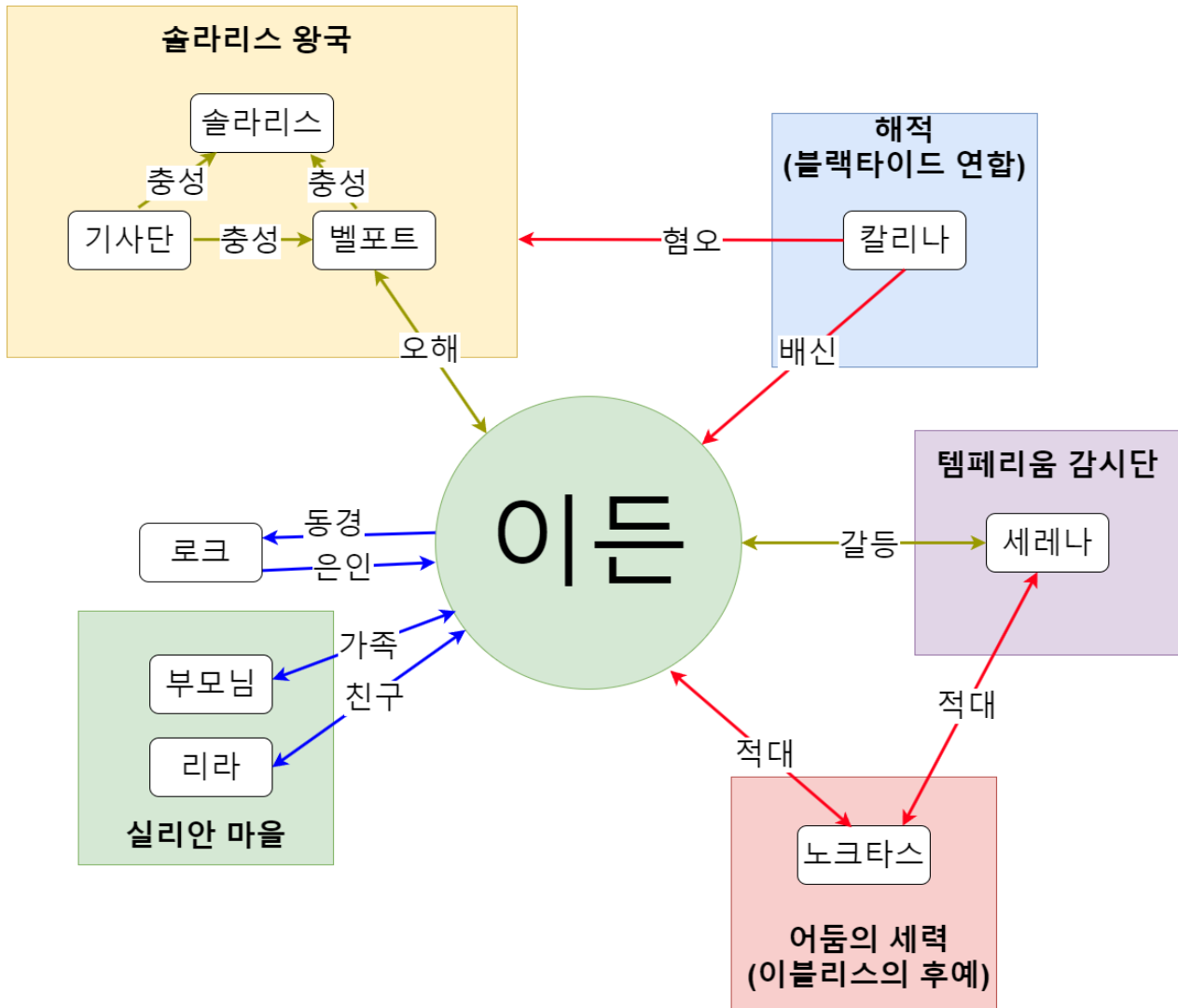
목차

1.갈등 구조

2.Part 1: [모험의 시작]

- Chapter1: 고요한 마을
- Chapter2: 숲에서의 만남
- Chapter3: 노인의 이야기
- Chapter4: 헤어짐과 결심
- Chapter5: 선택의 순간

1. 갈등 구조



1. 이든: 전설속의 섬 "엘디시아"를 찾으려 모험을 하는 주인공.
2. 로크: 의문의 노인(오랜 세월 동안 전설의 섬을 찾는다.)
3. 리라: 이든의 소꿉친구(이든의 모험을 응원한다.)
4. 벨포트: 왕국의 기사 단장(국왕에게 충성하며 명령을 따름)
5. 칼리나: 자유분방하며 거래와 배신을 자유롭게 하는 여해적.
6. 노크타스: 전설적인 섬의 힘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수장.
7. 세레나: 전설적인 섬이 발견되는 것을 막는 감시단의 수장.

Part 1

[모험의 시작]

Chapter 1: 고요한 마을

하늘은 한없이 맑고 바람은 나지막이 불고, 들판에는 철 따라 피어나는 들꽃이 흩날렸다. **실리안 마을**은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로,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한 곳이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며 살았고, 밖의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곳에서 자란 주인공 이든(Eden)도 마찬가지였다.

이든은 어렸을 적부터 마을 밖의 세상이 궁금했지만 가족과 마을 어른들은 "마을 밖의 세상은 너무 위험해 마을에 지내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든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거나 유일한 즐거움인 숲에 들어가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이든은 사냥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리라: "이든! 오늘도 숲에 나가는 거야?"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함께 놀던 소꿉친구 리라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했다.

이든: (활을 둘러메며)"그래 오늘 저녁거리도 잡아야 하니까 같이 갈래?"

(이든은 능숙하게 활과 검을 점검하고 떠날 준비를 한다.)

리라:(걱정스러운 눈빛)"요즘 숲에 야생동물이 많아졌다고 들었어."

이든:(미소를 지으며)"걱정 마."

(이든과 리라는 숲으로 향하고 나뭇잎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스며든다.)

(숲으로 향하는 동안 리라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간다.)

리라:(신나서) "그래서 말이야, 어제 마을에서 누가 염소를 잃어버렸대. 근데 있잖아, 내가 보기엔 산짐승이 가져간 게 아닐 수도 있거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아졌어! 그리고 너, 어제 저녁에 엄청 졸려 보였잖아. 제대로 잔 거 맞아?"

이든: (한숨을 쉬며) "리라..."

리라: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있잖아, 내가 생각한 건데... 혹시 이 숲에 전설 같은 거라도 숨겨진 거 아닐까? 어쩌면 엘디시아로 가는 단서가..."

(이든은 숲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손을 든다.)

이든:(낮은 목소리)"쉿 이제부터는 주위를 살펴야해"

(리라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살핀다.)

Chapter 2: 숲에서의 만남

짙은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숲 속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음이 간간히 들렸다. 이든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냥감을 찾던 중 낯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활을 치켜 세우며 이동한다.)

리라:(작은 목소리)“이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든:(긴장된 목소리)“리라 조심히 따라와 뭐가 나올지 몰라”

(낯선 소리의 장소에 도착했다. 그 곳에는 쓰러져 있는 노인이 보였다.)

이든:(놀란 표정)“이봐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숨을 헐떡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침반이 쥐어져 있다.)

리라:(놀란 표정)“마을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곳에 쓰러져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든:“모르겠어. 그래도 이대로 두고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리라:“그래 맞아. 어서 마을로 데려가자”

(이든과 리라는 의문의 노인을 부축하여 마을로 돌아 갔다.)

(부모님은 놀랐지만 이든의 결정에 따라 노인을 따뜻한 침대에 눕히고 정성껏 보살폈다.)

Chapter 3: 노인의 이야기

이든과 가족들은 몇 날 며칠동안 노인에게 따뜻한 수프를 떠 먹이며 간호했다. 점차 기운이 회복된 노인은 눈을 떴다.

노인:(힘이 없는 목소리)"여...긴....어..디..죠..?"

(이든은 노인이 깨어나자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이든:(놀란 목소리)"괜찮으세요?"

(몇시간 뒤 완전히 회복한 노인은 이든과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얘기를 했다.)

(노인은 감사 인사와 본인을 소개하였다.)

로크:"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로크, 세계 곳곳을 모험하던 모험가입니다."

(이든은 로크의 정체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랜 시간에 걸쳐 로크가 왜 숲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설명을 했다.)

로크:"네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정말로 고맙구나."

(로크는 이든에게 또 한 번 감사 표시를 했다.)

(늦은 밤이 되고 이든은 로크가 누워있는 침실로 향했다.)

이든:(눈빛이 반짝이며)"정말 모험가 예요? 모험 이야기 좀 들려 주 실수 있나요?"

로크:(웃음을 지으며)"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이든:"네! 너무 좋아요!"

(로크의 모험 이야기는 몇 날 며칠동안 이어져 갔고 이든은 점점 빠져들어 갔다.)

(로크는 자신의 목표로 하는 섬을 말했다.)

이든:(눈이 커지며)"전설의 섬 엘디시아요? 그건 동화속이나 전설로만 전해지던 섬 아니에요?"

로크:(온화한 표정)"엘디시아는 실존한 단다, 누군가들은 그곳에는 금은보화, 전지전능한 힘, 그리고 불로불사의 약이 있다고 하지 수많은 이들이 찾으려 했지만 그 누구도 닿지 못했지."

이든:(황당한 표정)"그 누구도 찾지 못했다면 없는 거 아닌가요?"

로크:(겉걸 웃으며)"그렇게 쉽게 찾는다면 전설적인 섬이 아니지, 내가 보증하지 엘디시아는 존재한 다 네, 그리고 존재한다고 믿고 찾아 보면 언젠간 그곳에 닿지 않겠나?"

(이든은 로크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고 어릴 적부터 모험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다.)

Chapter 4: 헤어짐과 결심

어느때와 다름없이 바람은 선선하게 불고 맑은 하늘과 내려 쬐는 태양 마을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발을 가꾸고 분주했다. 로크가 이든의 집에 온지 벌써 1달이되어갔을쯤 이었다.

이든:(아쉬운 표정으로 로크를 바라보며)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로크:(열은 미소를 지으며) “이든 네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회복하지 못했을 꺼야. 이제 나도 다시 모험을 해야지 않겠나?”

(이든은 로크의 말을 이해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숨기지 못했다.)

로크:(이든에게 자신의 나침반을 건네며) “이것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든:(당황하며) “이것을 저에게 왜...?”

로크: “이 나침반은 나를 수많은 방향으로 이끌었지. 지금의 너에게 제일 필요한 물건인 것 같다. 이 나침반이 너에게 방향을 알려 줄 꺼야.”

(이든은 나침반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내려다본다. 오래된 금속 표면은 바랜 흔적이 가득했고 중앙의 바늘은 끊임없이 떨렸다.)

(로크는 이든과 그의 가족들, 리라의 배웅을 받으며 실리안 마을을 떠났다.)

실리안 마을의 언덕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귀뚜라미 소리가 언덕에 퍼져 나갔다. 이든은 로크에게 받은 나침반을 보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든:(혼잣말) “내가...할 수 있을까...?”

(이든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매일 밤 나침반을 바라보며 자신이 떠날 수 있을지, 가족과 마을을 두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이든은 점심 식사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부드럽게 웃으며) “이든아 우리는 네가 네 길을 찾기를 바란다. 네가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아버지:(고개를 끄덕이며) “우린 널 믿는다. 하지만 떠나려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세상은 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든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한다. 단순한 감정적인 결심만으로는 세상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든:(결연한 표정) “알겠어요 저를 믿어 주신 만큼 저도 확실하게 준비를 할게요!”

(다음날 이든은 사냥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챙기고 숲으로 향했고 부모님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났지만 숲 깊은 곳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숲 중앙에 작은 모닥불과 작은 잠자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게 한달은 상처가 없는 날이 없었고 후회도 하며 흘러갔고 반년이 되었을 때는 처음 보는 맹수와 싸우며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찬바람이 피부를 찢기고 허기가

그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 일년이 흐른 시점에는 상대방을 관찰하며 어떤 움직임을 예상하게 되었고 생존을 하는데 있어 안정적이게 되었다. 숲에서 혹독한 수련을 끝낸 이든의 모습은 눈빛은 더욱 깊고 강렬 해졌다. 키는 더욱 커졌으며 손과 팔에는 수많은 굳은살과 흉터들이 남아 있었고 피부는 거친 구릿빛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든을 꼭 안아주었다.

Chapter 5: 작별과 새로운 시작

(깜깜한 밤. 이든은 언덕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다.)

리라:(거친 숨을 내쉬며)“늦은 밤에 무슨 할말이 있다고 높은 언덕에서 보자는 거야”

이든:“미안.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든:(씁쓸한 표정)“나 내일 떠나...”

(리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리라:(슬픈 표정을 숨기며)“정말 떠나는 거야?”

이든:(고개를 끄덕이며)“응 난 선택했어”

리라:(애써 미소를 지으며)“네가 떠날 줄은 알고 있었어. 잘 다녀와”

그날 밤. 이든은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든은 가족들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 하였고 가족들은 묵묵히 이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끝나치고 가족들은 이든에게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하였다.

어머니:“이든 항상 미안했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주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든:“어머니 전 어머니께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한쪽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얘기를 꺼내셨다.)

아버지:(묵묵한 표정)“이든 이 마을을 건국한 옛 선조님들도 모험가였다..”

(이든은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한 편으로는 당연 한거지 이런 곳에 정착을 하려면 수많은 곳을 넘어와야 하니까.”

아버지:“이 곳에 정착한 선조님들은 세상밖의 무서움을 느끼고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본인들의 모험을 기록하여 세상밖의 무서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 것이야.”

아버지:“그렇게 때문에 너가 세상밖으로 나갈 것을 난 두려웠다. 하지만 너의 고민과 노력을 보고 너를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했다. 모험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면 꼭 찾아라 전설의 섬을”

이든:(결연한 표정):“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찾아내겠 습니다.”

늦은 밤까지 부모님과의 얘기를 이어 나갔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짐을 챙겨 마을을 벗어나 항구에 도착하여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라:(숨을 헐떡이며)“잠깐만 이든!”

이든:(뒤를 돌아보며)“리라 너가 여길 왜?”

(리라는 숨을 고르고 있다.)

리라: "너에게 줄게 있어. 손 내밀어 봐."

(이든은 손을 내민다.)

이든: (무언가를 받으며) "이게 뭐야....?"

리라: "이건 내가 주는 행운의 부적이야. 잘 간직하고 다시 만날 때 돌려줘야 해"

이든: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잘 간직하고 있을 게"

이든은 리라의 배웅을 받으며 배에 올라탔다. 가슴의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든: (혼잣말): "이제 시작인가."